

지역 소식통

부안군, 청년농업인 간담회

청년농(農)담(談) 개최

부안군은 12일 김종택 부군수 주재로 보안면 이레농원(대표 박연미)에서 청년농업인들과 함께하는 간담회 청년농(農)담(談)을 개최했다.

김종택 부군수는 지난 3월부터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월별 간담회를 가져왔다.

이번 간담회는 '부안농업의 미래, 함께 열자'라는 주제로 부안팔작목판 청년농업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팔작사를 통한 소득향상 방안, 작목반 운영 애로사항과 함께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김종택 부군수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위기 속에서 결국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은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꿈의 크기"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고창군수가 제출한 △2022년 장애인복지관 민간 위탁(제계약) 동의안 등 1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총 16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간 제8대 고창군의회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왔던 김미란 의원이 4월 7일자로 사직하여, 이를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다.

한편, 14일부터 19일까지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창 솔재 생태축 복원사업' 등 총 16개의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대면보고를 통해 각 과·관·소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노을이 아름다운 만돌마을

고창군, 4월 안심여행지 선정 고즈넉한 어촌마을... 대한민국 명품 바지락 성지

고창군 만돌어촌 마을이 4월에 방문하기 좋은 어촌 안심여행지에 선정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가 4월 어촌 안심 여행지로 고창군 심원면 만돌마을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우리 어촌체험을 가족, 친지 등 소규모 여행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매달 선정해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만돌 어촌마을은 섬과 갯벌이 어우러져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에서의 체험은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갯벌에서 호미와 갈고리로 이곳저곳 파내다 보면 동글동글한 동죽조개가 모습을 드러낸다. 또 명사십리 해변과 갯벌 전망대에서선 파스한 봄정취를 느낄 수 있다.

만돌마을은 '바위에 굴뚝만 개가 솟아 흥남 굴'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해 질 무렵 펼쳐지는 낙조는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동죽과 바지락, 재래김과 천일염이 주요 특산물이다. 고창군은 '만돌관광 거점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만돌커뮤니티센터 조성, 비람공원 경관조형 설치, 마을생태숲 등이 들어선다. 비람공원 경관조형, 옥상 공원과 하늘사다리라는 주변 관광시설(갯벌 체험장, 갯벌 식물원 등)과 연계해 심원면의 관광자원을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민들 마을은 갯벌과 염전, 모래사장을 앞 마당에 두고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넘쳐나는 대한민국 대표 어촌마을이다"며 "봄날을 맞아 가족들과 방문해 아름답고 포근한 자연을 둘러보고 힐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민들 마을은 갯벌과 염전, 모래사장을 앞 마당에 두고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넘쳐나는 대한민국 대표 어촌마을이다"며 "봄날을 맞아 가족들과 방문해 아름답고 포근한 자연을 둘러보고 힐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저소득층 유아·청소년 스포츠 복지 증진 '박차'

정읍시, 월 85000원 스포츠 이용권 지원... 22일까지 참여자 모집

정읍시가 저소득층 유아·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청소년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스포츠 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유아·청소년의 평등한 스포츠 향유 기회 보장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취약계층 유아·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 복지 구현을 위해 월 8만5,000원 범위 안에서 스포츠 강좌 이용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법정 한부모가구의 만 5세부터 18세(출생일 기준 2004.1.1.~2017.12.31.) 유아·청소년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2022년 대상자를 선정해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더 많은 대상자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신청은 스포츠 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29일까지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확정 대상자는 스포츠 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 스포츠 시설을 확인하고, 수강 신청 후 온라인(PC, 모바일)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과 방과 후 교육 지원 사업과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 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정읍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063-539-524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유아·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확대되어 사각지대 없는 스포츠 복지 서비스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일반산업단지 동우팜투데이블 입주계약 집행정지 항고도 '기각'

고창일반산업단지 동우팜투데이블의 입주계약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 7일 '동우팜투데이블 입주계약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심공판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장 신청인 및 인근에 대한 직접적 환경 피해를 비롯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짧아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심 결정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창일반산업단지지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입주계약 처분취소'와 '입주계약 집행정지'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입주계약 집행정지'는 1·2심 모두 기각됐고, '입주계약 처분취소' 소송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관련 고창군은 "법원에서 다름이 진행중인 사안임에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일부 주민과 언론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군민에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있어선 안 될 것이다"며 "신속히 소송을 마무리하고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 3명(김성수, 김종규, 김상곤)이 13일 김성수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직 군수 의혹 당 차원 신속 조사를"

민주 부안군수 예비후보 3명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 3명(김성수, 김종규, 김상곤)이 13일 김성수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익현 군수가 위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으며 오히려 예비후보 3인의 공동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중상모략으로 일축하며, 예비후보들이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권 군수의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설계용역과 제반비용 약 1억원 가량의 자금은 누가 부담했는지, 2020년도 태양광허가까지 난 부지는 평균 2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음에도 8만원에 매입했다면 출처와 지출내역 또한 소상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농지가 도시계획 제

정비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 개발이 예상되는 건폐율 20프로 생산농지 지역을 매입하고 불과 몇 개월만에 건폐율과 용적율이 200프로 이상 증가하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영기적인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가 아니겠냐"며 "화원용 하우스를 짓기 위해 농지 1,000여평을 10억원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를 짓고자 농지 1,000여평을 어느누가 10여원을 들여 매입했다고 말하겠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당 차원의 신속한 조사와 심사를 요구하며 국민을 위한 당이 되기를 기원하며, 부안군민과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엄중한 대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안군수의 가족 비리와 측근 비리와 관련 군수직을 물러날 것을 촉구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귀농·귀촌학교 참여 교육생 30명 모집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는 2022년 상반기 귀농·귀촌 참여 교육생을 모집한다.

귀농귀촌학교는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귀농·귀촌 희망자와 초보 귀농인을 대상으로 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농업교육과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신청은 11일부터 25일 오후 4시까지 선착순(30명)으로 접수 마감하며, 교육비는 정부담 20만 원이다.

신청 방법은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구비서류를 팩스(063-533-6799) 또는 이메일 전송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평일 합숙형(토, 일요일 제외) 교육으로 14일간 진행된다.

교육생은 귀농·귀촌 정책안내, 농작



물 제배와 가공, 농기계 교육, 귀농·귀촌 시례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완료한 교육생들에게는 수료증(100시간 인정)을 발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533-6789)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